

중국 신장 마납사현 - 면 방직 산업 집적 거점을 건설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마납사현(瑪納斯縣)은 면 방직 공업 파크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면서 많은 면 방직 메이커를 불러들여, 면 방직 산업 집적(集積)을 이 자치구의 면화 주 생산지에 만들고 있다.

이 현은 현의 서쪽에 14km²의 구역을 면 방직 공업 거점으로 지정하였다. 정부가 일부를 출자하고 파크 기업이 일부를 자체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國債) 자금을 신청하여 합계 7,000만 위안과 나머지는 인프라 건설과 환경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 파크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현재 면화 산업과 관련된 기업은 9개사가 있으며, 오양과기(澳洋科技), 항성면방(恒誠綿紡) 등을 대표로 하는 면 방직 산업 집적을 최초로 만들고, 2005년의 실현 공업 증가치(총생산액에서 고정 비용을 뺀 순 생산액)는 12억 8천만 위안으로 올랐다.

산업을 질적으로 높여 최적화하고 산업 체인을 더욱 연장하기 위하여, 이 현은 방직, 날염, 제직, 어패럴 등을 유치하고 방직 공업 대(大)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노력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코튼, 펄프, 비스코스 섬유 생산 거점을 키워 명실 공히 이 자치구에서 일류의 면 방직 공업 거점으로 만들었다.

마납사현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하면, 이 현의 면화 산업 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약 2만 7천ha의 양질 면화 거점을 만든다. 양질 면화의 설비 능

력은 50만 추 이상이고, 코튼·펄프·비스코스 섬유는 연산 10만t 이상이고, 아세테이트 섬유는 6천t이 될 것이다. 제직·날염 업계도 일정 규모를 갖추고 면화 산업의 연간 판매액은 50억 위안 이상이며, 이 현의 면화 사업 1년당 실현 증가치는 28억 위안이 된다.

오양과기는 금년 3,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기존의 코튼·펄프·비스코스 섬유의 일부 설비·부품을 갱신·개조하여 코튼·펄프 연산 능력은 현재의 8만t에서 9만t으로 비스코스 섬유는 6만t에서 7만t으로 늘려 1년당 공업 생산액은 1억 5천만 위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